

광주·전남 취업자 6명 중 한 명 '일하는 노인'

지난해 65세 이상 취업자 26만5000명...10년 전보다 7만2000명 증가 기초수급자 5만2185명 ...70세 이상 62%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정부 '고령자 고용 장려금' 신설...중소기업에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일을 한 시도민 6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한 달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70세 이상은 60%가 넘었지만 10년 전보다는 다소 비중이 줄었다. '노인의 날' (10월2일)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30일 고령 직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고령 직원 수가 기준 시점 이전 3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직원 1인당 분기 30만원을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 장려금'을 내년부터 신설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취업자 172만2000명 가운데 15.4%에 달

하는 26만5000명은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근로자는 지난 2010년 19만3000명에서 지난해 26만5000명으로, 10년 새 7만2000명 늘었다. 광주·전남 '일하는 노인' 비중은 10년 전 12.1%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며 지난해에는 15%를 넘겼다. 10년 새 광주 65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4.4%에서 8.8%로 2배 뛰었다. 전남은 17.9%에서 20.4%로, 2.5%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26만명이 넘는 고령자가 일을 했지만 벌이 수준은 녹록치 않다. 광주·전남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월 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70세 이상 비중은 62.2%로 나타났다. 단 이 같은 수치는 광주의 경우 2010년 73.5%에 비해서 11.3%포인트 감소했고, 전남지역도 지난 2011년 85.2%에 비해 23%포인트나 줄었다. 지역 노인의 팍팍한 경제 사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현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광주·전남 전체 기초수급자가 4.1%(6704명) 늘어날 동안 65세 이상 수급자는 29.7%(1만1955명) 증가했다. 지난해 광주·전남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5만 2185명(광주 2만911명·전남 3만1274명)으로, 전체 16만9503명의 30.8%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수급자는 지난 2010년 4만230명에서 지난해 5만2185명으로, 29.7%(1만1955명)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15.2%→25.4%, 전남 30.6%→35.9% 등으로 늘었다.

광주 70세 이상의 하루 평균 컴퓨터 이용 시간은 지난 2010년 1.6시간에서 지난해 2.6시간으로, 1시간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광주 70세 이상 스마트기기 이용시간은 1.5시간이었다. 전남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70세 이상 비중이 36.9%에 달했다. 지난 2019년 전남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물어보니 '건강문제' (35.9%)를 가장 많이 호소했고, 경제적인 어려움(27.4%), 외로움·소외감(10.0%), 소일거리가 없음(8.9%), 노인복지시설 부족(5.3%), 사회의 경로의식 약화(4.8%),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3.4%) 등도 꼽았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8월 기준 65세 이상 지역민은 광주 21만297명·전남 44만1759명으로, 각각 전체 인구의 14.6%·24.0%를 차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창립53주년 기념 '행운박스 예금' 53일간 판매

최고 1.60% 금리 우대

광주은행은 창립 53주년을 기념한 특판 '행운박스 예금'을 오는 11월15일까지 총 53일간 판매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판매 한도는 1500억원 규모로 소진되면 조기 종료한다. 이 특판은 영업점 창구와 모바일 웹뱅킹을 통해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저 1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추가 특별 우대금리를 더해 1년제 최고 연 1.40%, 2·3년제 최고 1.60%다. 광주은행은 앞서 8월18일부터 9월23일까지 총 1000억원 한도로 특판을 했으며 고객의 추가 요청에 따라 창립일을 맞아 이번 특판을 마련했다. 송중욱 은행장은 "창립 53주년을 기념해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 신규 고객 및 주거래 고객을 모시기 위한 특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보해 과일맛 잎새주 달콤함으로 일본 사로잡는다

멜론·체리맛 등 다양...일본 전역서 판매 예정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만든 과일소주가 일본 전역에서 판매된다. 보해양조는 지난 30일부터 일본 현지 업체와 협력해 과일맛 잎새주와 복판은 부라리 등 제품을 선보인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보해양조는 현지 파트너인 (주)에이산이 운영하는 'Yes mart'를 통해 15년 숙성 매쉬순과 순회 막걸리 등을 판매 중이다. 이번엔 만든 과일소주는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과일맛을 첨가한 잎새주 제품으로,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았으며 일본 수출용으로도 생산된다. 보해양조는 소비자 분석을 통해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과일인 사과, 정포도, 복숭아, 멜론 등 여러 가지 맛의 과일소주를 만들었다. 과일맛 잎새주 외 그동안 일본 내 한인타운 등 일부 매장에서 주로 판매되던 다른 보해양조 제품 역시 올해 말까지 일본 전역에 위치한 15개 'Yes mart'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밖에 자두, 키위, 체리맛 등 일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과일맛 소주에 대한 수출 협의도 진행 중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보해는 주류종합연구소를 가진 주류전문기업으로 보해복판자주와 매쉬순 등 과일소주 이외에도 소비자 니즈에 맞춘 여러 과일맛 소주를 생산해서 수출 중이다"며 "지금까지 베트남과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 현지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과일소주를 생산해온 보해는 이번엔 일본까지 판매망을 확대하면서 매출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해양조와 협업 중인 (주)에이산은 순천 출신 장영식 회장이 1995년에 설립한 회사다. 면세점 사업을 시작으로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해양조 주류 외에도 여수 갯김치 등 전남지역 상품을 일본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국광산업진흥회 '공기가전 쇼셜마케팅 전문가과정' 수료

SNS 마케팅 실무과정 운영 15일까지 3기 교육생 모집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지난 30일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공기가전 쇼셜마케팅 전문가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진흥회가 수행한 교육 과정이다.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부재와 교육훈련 예산부족, 마케팅 분야 인력수요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수요가 많은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 실무과정으로 운영됐다. 조용진 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향상과 이를 통한 기업발전 등 지역 중소기업 체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회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을 통해 올해 8월부터 광주지역 내 구직을 희망하는 실직자(예정) 또는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기가전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추진 중이다. 또 지역 관련 기업 32개사를 대상으로 1500만원 상당의 제품디자인 개선, 고부가가치 개발·제작 지원 등을 추진해 판로확대와 일자리 안정, 고용

창출에 나서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기가전기술전문가 교육과정은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과 실습위주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0월15일까지 3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 재생에너지 송변전 설비·ESS 대폭 늘린다

2034년까지 안정적 전력공급 목표

한국전력이 신안과 서남해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과 연계한 송변전 설비를 대폭 늘리고 전력계통 안정화용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확충한다. 이를 통해 2034년까지 77.8GW의 재생에너지를 수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 3020 달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이번 내용을 담은 '제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0~2034)'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송변전설비계획은 2년마다 15년마다 필요한 송·변전설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9차 계획은 ▲재생에너지 등의 발전기 연계를 위한 적기 계통 보강 ▲전력계통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계통 안정화 ▲산업단지·택지지구 등에 안정적인 전력공급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8.2GW 규모 신안 해상풍력과 6GW 규모 여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에 대한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새만금~군산, 신정읍, 서고창, 신장성 등에 송변전 시설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한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호남권 최대 전

력수요가 연 평균 0.6%(9531MW→1만384MW)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전은 인구감소와 개발지구 수요공급이 완료되고 있는 호남권은 전력 수요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68.82 (+8.55)
↑ 코스닥	1003.27 (+1.81)
↓ 금리(국고채 3년)	1.593 (-0.010)
↑ 환율(USD)	1184.00 (+2.20)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삼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